# 만남

2021년 2월
통권 193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 철 현 미카엘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 목 차 ❖


| | | |
|---|---|---|
| 신부님 칼럼 | + 희망의 힘---------- | 3 |
| 소공동체 모임 자료 |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4 |
| 교리 | 신앙 산책---------- | 7 |
| 나눔 | ---------- | 10 |
| 지혜로운 삶 | ---------- | 12 |
| 영적 상담 | ---------- | 14 |
| 기도하는 삶 | ---------- | 16 |
| 알림 | ---------- | 17 |
| 축일을 축하합니다 | ---------- | 18 |
| 전례 | ---------- | 19 |
| 공동체 소식, 지방 공동체 소식 | ---------- | 20 |
| 활동단체 모임 안내 | ---------- | 21 |
|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 | 22 |
|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안내 | ---------- | 23 |
| 미사안내 | ---------- | 24 |


## 《교황님의 2월 기도지향》

### ❖ 보편 지향 : 폭력 피해 여성

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사회의 보호를 받고 자신들의 고통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희망의 힘*

올해 겨울은 그다지 춥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꽁꽁 얼어붙어 다시 한 해를 맞이했다는 느낌조차 빼앗긴 채로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마음은 웅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제일 소중한 덕목은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겨울을 뚫고 일어나는 어린 새싹처럼 끈질긴 마음으로 기다리는 희망이야말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이제는 다시 2월입니다. 가장 짧은 달이지만 설날도 있고,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도 있는 의미 있는 달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975년 독일주교회의에서는 뷔르츠부르크 시노드 문헌, <우리의 희망 - 이 시대 안에서 신앙고백>(Unsere Hoffnung)을 발표합니다. 이 문헌은 교회와 세상, 교회 내 개혁 등과 관련한 성찰을 담은 중요한 문헌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희망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구원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의 상황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섣부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희망을 굳이 죽음 이후와 연관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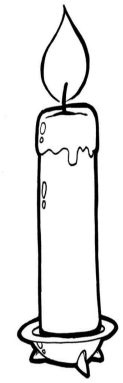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희망의 한 단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외갓집에 갔을 때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라헬이 참 예뻤나 봅니다. 마침 라반이 야곱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며 보수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 묻습니다. 야곱은 이때다 하며 말을 꺼냅니다. “외삼촌,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라헬과 혼인시켜 주세요. 그러면 그 대가로 제가 외삼촌을 위해 7년 동안을 품삯을 받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우리나라 30대 남자 1년 평균 연봉이 4500만 원 정도이니, 7년을 약속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3억 1500만원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7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야곱은 7년을 힘겹게 견디며 산 것이 아닙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을 생각에 너무나 신이 나서 7년이라는 시간이 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힘입니다. 하루하루 열려지는 기묘하고 신비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입니다. 그것은 또한 올해 사순 시기를 보내는 우리의 자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사순 시기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희망 가득 찬 표정으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 1,12-15)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24장 "은혜로운 회개의 때"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님! 당신의 보살핌 안에서 올해의 사순 시기가 은총이 되게 하소서.*

❖ *언제나 저희들을 초대하시는 주님, 당신께 저희 봉사의 화환을 드리나이다.*

**진행자** 한 분이 마르코복음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1 12 그때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13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14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래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15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다음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세례를 받았을 때의 특별한 마음이 들었다면 나누어봅시다.*

##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낯선 땅, 광야는 찾아 나설 자리가 아닙니다. 광야는 초대된 자리이고, 사람들이 일상의 익숙함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엔 창조의 설렘도 가득한 곳입니다. '여전히 나'로 존재하지 못하기에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다듬을 수 있는 자리가 광야이기도 합니다.
사십 일, 그 날들의 숫자는 이스라엘에게는 각별합니다. 여전히 노예살이를 해야 했을 시간을 전혀 새로운 광야의 체험에로 돌려놓은 숫자이고, 그 체험 속에 하느님을 그려내고 닮아내고, 살아냈던 숫자입니다. 사탄이 있든, 들짐승이 있든, 그리고 그 어떤 장애와 아픔이 있든, 하느님을 통한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사십 일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한 저항' 안에서 도래합니다. 일상에서 경험하듯, 그 저항은 대부분 실패와 좌절로 귀결됩니다. 저항의 목표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저항은 대립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갈라짐을 위한 저항이 되어선 안 됩니다. 저항은 단절된 세상과 나를 깨뜨리는, 그래서 우리의 완고함을 통과하여 따뜻하고 부드러운 가슴에 포탄처럼 박혀 울려대는 모든 이의 울부짖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신 예수님과 영적인 천사,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들짐승, 그리고 급기야 비난과 왜곡의 사탄마저 끌어안는 통합의 자리에서 저항은 빛을 발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이 저항의 자리에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한 나는 '어울림'을 위해 비루하기도 하고, 고단하기도 한 광야의 삶을 오늘도 살아냅니다. 광야는 새로움을 위한 '오래된 미래'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그리고 이번 달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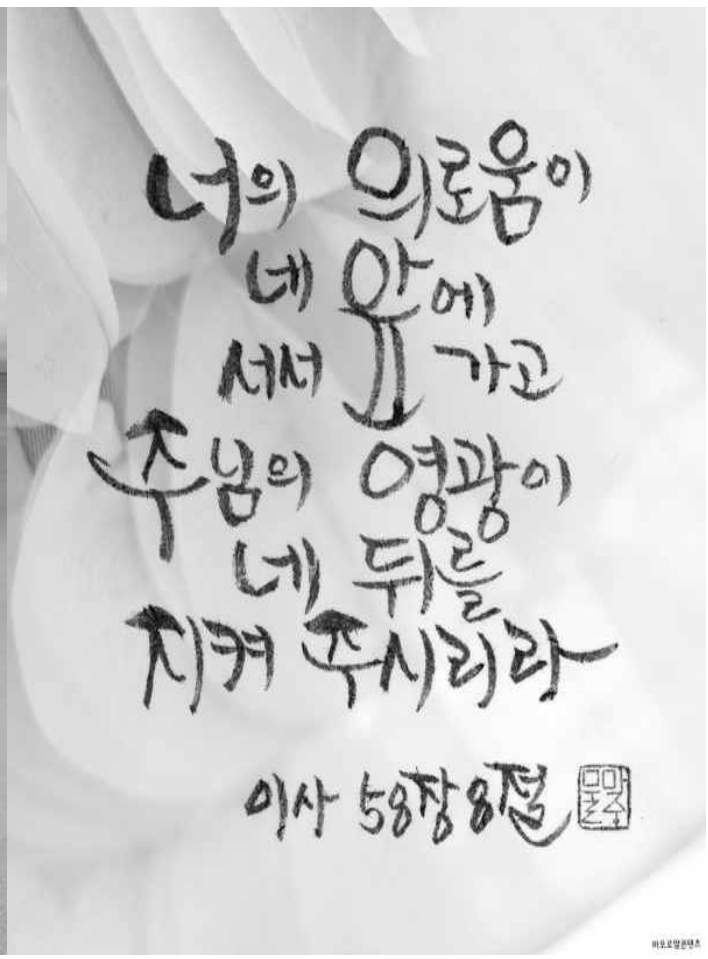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24장 "은혜로운 회개의 때"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10. 신경해설 -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다른 모든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시간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며 유한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님이시므로 시대와 역사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아직 시간 속을 여행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1요한 2,18)에, 만물이 그분께 굴복할 때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그 때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며, 성령과 교회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고 외칩니다.(묵시 22,20)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예수님께서는 충실한 제자들에게 상을 주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만 아신다."(마태 24,36)고 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종말의 시간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이를 속일 것이다."(마태 24,4-5)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모여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비를 베푸셨지만, 주님의 이 자비를 받지 않겠노라고 거절하는 사람은 스스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죽은 이들이 부활하여 살아있는 이들과 함께 주님 대전에 서게 되고 그들이 주님의 은총을 받아들였는지 거부하였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라는 기준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판가름하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마지막 때에 하느님께서는 천지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 새로운 우주에는 슬픔과 눈물이 없을 것이고, 인류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이 영원히 패망할 것입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묵시 21,3-4)

## 11. 신경해설 -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

신경은 사도신경이든 보다 긴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든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곧 삼위일체 하느님의 세 위격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성부 하느님에 대하여, 두 번째 부분은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성령께 대하여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신 성령

성령께서는 성부, 성자와 더불어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오직 하느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이므로 성령을 주님이라 부름으로써 우리는 성령께서 하느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라는 말로 삼위일체의 각 위격이 동등하고 완전히 같으신 한 분 하느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살리시는 성령

하느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창조하고 보존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태초에 혼돈 위를 휘도시었고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시며 사도들에게 "성령을 받아라."(요한 20,22)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에게 임하시어 천상 생명을 전하셨습니다. 세례 받은 모든 사람은 성령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생명, 곧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사도 17,28) 하신 말씀은 이 뜻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신자의 삶에 생기와 열정을 불어넣으시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게 하십니다.

인도하시는 성령

구약 시대에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성령께서는 오늘날도 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알아듣고 기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으신 대로만 말씀하셨듯이 성령께서도 오직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되새기게 해 주시는데, 그 안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은 곧 하느님이시므로, 하느님께서는 신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몽땅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두 바치는 사랑,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이야말로 모든 능력의 총화이며 영원한 생명의 비밀입니다.

## 12. 신경해설 -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직접 수립하신 것이므로 일반 세상의 단체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신경은 네 가지로 나누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종파가 많이 있지만,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교회에 대한 이 네 가지 믿음을 다 지키고 있는 교회는 오직 가톨릭교회뿐입니다.

하나인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몸에 합하여진 모든 세례 받은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나누어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한 분이시므로 이 몸은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안에 여러 분파가 있는 것은 사람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분열된 결과이고, 실제로는 한 성령으로 같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오직 하나의 참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거룩한 교회

교회는 하느님께서 직접 세우셨고 그 안에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므로 거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으로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지만 또한 사람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와 함께 이 교회에 속하십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신자들이 모두 무죄하고 성덕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멤버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교회에 속한 이들이 악행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하느님께서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는 한 교회는 여전히 거룩합니다.

보편된 교회

옛날에는 “공번된 교회”라는 표현을 썼는데, 같은 뜻입니다. 이 보편되다(희랍어로 katholikos)는 말에서 가톨릭이라는 이름이 나왔으며, 초대 교부들 때부터 이 이름으로 하느님의 교회를 일컬었습니다. 교회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도구이므로 가입 조건에 제한이 없으며, 남녀노소 누구든지 인종과 출신을 불문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마산교구의 교구장 배기현 주교님께서는 전 교구장이셨던 안명옥 주교님으로부터 주교품을 받으셨습니다. 이 주교품의 족보를 죽 따라 올라가면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 중 한 분에게 이릅니다. 세상 모든 주교님들은 그래서 한 분도 예외 없이 사도들의 후계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접 명령 없이는 아무 사람도 목자의 직무를 스스로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 ◆ 미사 전례 안에서의 자세(한분도 베네딕토 신부님)

군대 훈련소에는 각 종교별로 종교행사가 있습니다. 그 종교 중, 군인 병사들이 싫어하는 종교행사가 바로 천주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행사 중에 자꾸 일어섰다 앉았다 귀찮게 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례 중 이러한 동작은 알면 그것만큼 의미 있고 감동적인 동작들이 없습니다.

본래 아주 옛날 성당에는 신자석에 의자란 것이 없었습니다. 의자는 왕이나 주교, 주례 사제만이 앉을 수 있었습니다. 신자들은 성당 안에서 서 있거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교는 미트라(주교관)를 바꿔 쓰면서 전례의 성격, 즉 참회, 기쁨, 축제 때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 중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와 보편 사제직을 강조하면서 전례 안에서 신자들의 동작 하나하나에도 그 의미가 풍부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능동적 참여를 증진하도록, 백성의 환호, 응답, 시편 기도, 따름 노래, 성가와 함께 행동이나 동작과 자세를 중시하여 한다.”(전례헌장 30항)

미사 중에 일어서는 것은 존경과 공경의 표시입니다. 초대 교회에서부터 일어선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희망과 믿음으로 종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이자, 사제직을 수행하는 이의 자세입니다. 오늘날 일어선다는 보편적인 의미는 복음을 듣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이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물론 일어서 있을 때 신자들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세를 갖춥니다.

반면에 가르치는 이가 앉아 있을 경우에는 스승으로서의 권위와 위엄을 표시하고 있지만, 미사 전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앉는 자세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안정된 상태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 묵상하기 위한 자세이며, 깊이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삶에 옮길 결심을 위한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는 자세의 의미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청할 때, 또는 무엇인가 간절히 애원할 일이 있을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아울러 무릎 꿇는 자세는 상대에 대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에게 자비를 바랄 때 사용되는 자세입니다. 본래 유럽과 서양에는 한쪽 무릎을 꿇는 동작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모두 두 무릎을 꿇도록 하고 있고, 혹은 깊은 절로 대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들을 잘 알고 있다면 미사 중 전례의 성격을 잘 알 수 있고, 또 이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 이혼한 후에는 성체를 모실 수 없을까요?(김대섭 바오로 신부님)

가톨릭교회에서 이혼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자들 역시 다양한 이유로 민법에 따라 이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혼을 한 이들의 성사생활은 가능한 것일까요?

교회는 혼인에 따른 동거가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이 있음을 지적하며 “부부의 실질적 별거와 동거의 종식을 인정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649항). 즉 국법상(민법상) 이혼한 이들에게 가능한 한 화해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혼한 이들의 성사생활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부는 하느님 앞에서 계속 남편이고 아내”(가톨릭교회교리서, 1649항)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혼한 이들은 사회법적으로 보면 남남이 되지만,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는 별거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아가 교회는 이혼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혼한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이혼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려해 주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이들이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톨릭 신자가 교회 안에서 혼인을 맺은 후 이혼하고, 다시 민법에 따라 재혼한다면 이들은 하느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혼인성사를 한 후에 이혼을 하여 아내와 헤어졌다 하더라도 그 첫 혼인의 유대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다른 여자와 혼인을 한다면 그 남자는 두 번째 여자와 혼인의 유대가 새롭게 이어져, 결국 그 남자는 두 여자와 혼인을 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내와 남편의 평등한 인격적 존엄으로, 주님께서 확고히 세우신 혼인의 단일성”(가톨릭교회교리서, 1645항)을 어기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성체를 모실 수 없고, 고해성사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650항 참조).

이를 가리켜 잘못된 ‘혼인의 상태 때문에 성사를 받는데 장애가 생기게 되었다.’는 뜻으로 혼인장애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조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조당은 ‘막혔다.’는 뜻으로, 성사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막혀 성체를 모실 수도 없고 고해성사를 받을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오히려 이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미사성제에 참여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권고하며, 참회의 정신과 참회의 행동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간청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651항 참조).

## ★ 사순 시기 우리의 자세(홍승권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사순 시기는 우리의 육체적 극기나 단식을 통한 참회의 생활로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에 참여하여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참회와 속죄로 생활의 혁신을 촉구하며 하느님과 만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40일이라는 기간은 속죄로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하느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위하여 합당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며, 장차 이루어질 중대 사건인 부활을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기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당한 준비가 필요한데 크게 보면 외적 준비와 내적 준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모두 일컬어 넓은 의미로 사순 시기에 재를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재를 지킨다고 할 때는 대재인 단식과 소재인 금육을 말합니다.

<u>외적 준비</u>

이러한 준비는 소극적인 준비로 교회가 정한 단식과 금육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본래 단식과 금육은 교회법규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던 것을 교회가 법규로 도입을 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동기에서 자발적으로 재를 지켜 왔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에 열중하기 위해, 죄를 보속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리고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재를 지켜 왔습니다. 특히 부활 축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초창기부터 신자들 스스로 며칠 동안 재를 지켜 온 것입니다.

본래 단식은 그 날 한 끼만 식사를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저녁 식사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점차로 교회의 단식 규정이 세분화되면서 육식을 금하는 금육 규정이 첨가되었습니다.

오늘날 단식의 규정을 보면 단식은 만 21세부터 만 60세까지의 모든 사람이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제대로 먹고 저녁은 요기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 1년에 2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나 수험생 혹은 의무 복무중인 병사 등에 대해서는 단식을 관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식을 금하는 금육은 만 14세로부터 죽을 때까지 지키도록 하고 있습

니다. 금육에서 우유, 계란, 생선 등은 제외되며 금육을 하는 시기에 관해서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만 재의 수요일과 사순 시기의 매 금요일에 지키도록 했지만 현재에는 재의 수요일과 연중 모든 금요일에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식과 마찬가지로 예외의 사람들에게는 관면을 하고 있습니다.

외적 준비 없이 내적 준비를 갖추기는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외적 준비인 음식 절제로부터 자신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금육과 단식을 단순히 그 자체를 위해서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위한 단신과 금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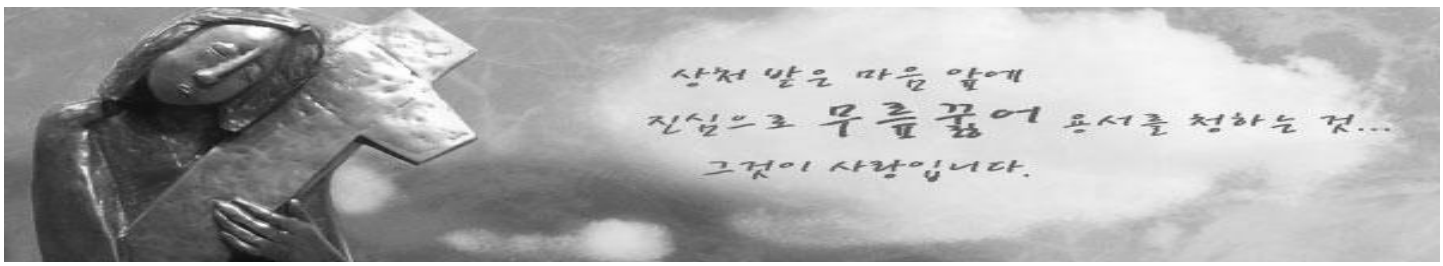
<u>내적 준비</u>

이 준비는 적극적인 준비로서 하느님을 행하는 마음과 전례 예절을 통한 준비라 할 수 있습니다. 회개와 속죄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쇄신하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전례는 사람들이 이런 적극적인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사 때나 말씀의 전례에서 알렐루야와 대영광송을 하지 않으며 사제가 입은 제의의 색도 회개와 보속을 상징하는 자색(보라색)입니다. 그리고 전례의 말씀들은 온통 이런 준비를 계속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인들은 이 시기에 평일 미사에까지 참석하며 하느님을 향한 회개의 삶을 다짐하고, 교회가 배려한 사순절 특별 강론을 등에 참가하며, 고백성사를 통해 하느님과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부활을 앞둔 시기에 꼭 고백성사를 보고 부활 시기에 영성체를 하는 것을 교회법상의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라고 바오로 사도는 선포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례에 참여하지는 못하고 사순 시기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성대하게 전례적으로 시작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재를 받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창조 때의 하느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 종교인들의 사기행각이 보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신앙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런 보도를 접하면 두렵기도 하고 괜히 종교를 선택했나 후회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분들을 만나면 그런 생각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여전히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속칭 '종교 사기꾼'은 어떤 사람들인지요?*

**답변 : 홍성남 신부(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장)**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리게 한다는 말처럼 종교계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사실 종교만큼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기 치기 쉬운 곳도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기를 치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일단 의심을 품지만, 종교인들은 '신부인데' '목사인데' '스님인데' 하면 일단 신뢰심을 갖고 호감을 느끼기에 사기꾼들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종교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면 외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기꾼 식별이 쉬운 편이지만, 영악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눈속임하는 수법이 능란해서 쉽사리 식별하기 어렵고 설령 사기행각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추종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도의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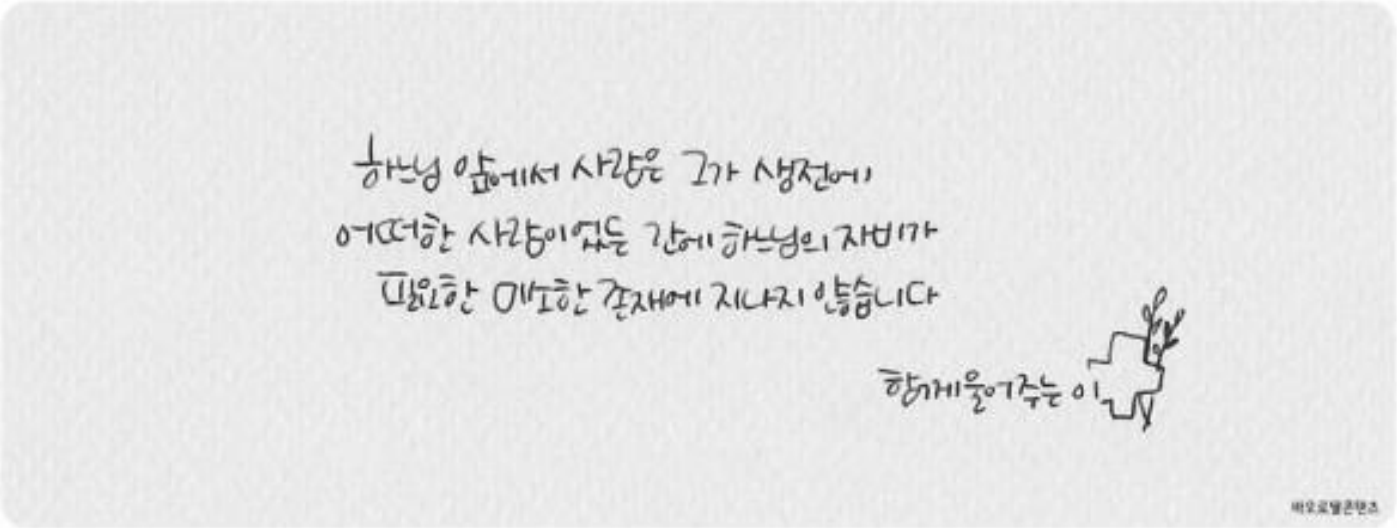
우선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방어기제 중에서 '반동형성'이란 것을 사용합니다. 반동형성이란 자신의 욕구와 정반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인데, 그 표현 정도가 지나칠 경우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정반대의 성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정의를 부르짖고 지나치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정의 실현과 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하는 경우 대부분 그 마음이 부정직하거나 혹은 가난에 대한 혐오감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의와 복지 운운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후 금품 혹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 비난을 못 합니다. 외부에서 정의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사람으로 이미지화됐기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부류는 영적 협박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가끔 당신에게서 기운이 느껴진다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흥종교 사람들인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비단 신흥종교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도 영적으로 어두운 기운이 느껴진다는 등의 말로 심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은근히 금품 헌납을 감사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 신자분들은 쉽사리 의심하고 거부하기 힘듭니다. 행여 그런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까 걱정돼 불안한 마음으로 추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건드리고 조종하는 영악한 짓을 합니다. '지금 가정의 우환이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거나 '죽은 이의 영혼들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무속인들이나 하는 협박성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을 신경증적인 상태로 몰아넣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영적 운운 하면서 마치 자신이 영적인 세상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느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거부감을 갖는 것을 하느님께 노여움을 사는 것으로 생각해 자신 안의 작은 의심을 접고 조건 없고 복종적이며 의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종교적 사기행각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주님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 복음 묵상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성경의 일부 내용에만 집착하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면 사기꾼들의 행적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조류 전문가가 된 무기수(월간 좋은 생각 중에서)

캔자스 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로버트 스트라우드는 무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독방에서 살아야 하는 자신의 희망 없는 인생이 무의미하게 생각되어 여러 번 자살도 생각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차마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어떻게든 마음을 잡고 살아야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15분간 있는 운동시간에 그는 혼자서 비를 맞으며 운동장을 산책하다가 기운 없이 떨어져 있는 참새 한 마리를 발견하였습니다. 불쌍하게 여긴 그는 참새를 자신의 감방 안에 데려와 바퀴벌레를 잡아 먹이는 등 정성껏 돌보았고 덕분에 참새는 얼마 뒤 건강을 회복해 날아갔습니다.
대신 그에게는 카나리아 한 쌍이 새로 생기게 되어 또 모든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카나리아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된 그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해 교도소에 비치된 책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연구에 재미를 붙이게 되자 어머니에게 필요한 약품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피눈물 나는 실험을 거듭하던 그는 마침내 그 질병의 정체와 치료법이 무엇인지 밝혀냈고 곧 그의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박사학위는커녕 초등학교 3학년을 겨우 마쳤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캔자스 시티 스타>라는 일간지에 크게 실리면서 비로소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차차 그는 책을 써서 '새 전문가'라는 명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신문 기사를 보고 면회 온 여인과 결혼하는 행운을 얻기도 했지만 무기형만은 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감방 안에서 하릴없이 세월만 보냈다면 세계적인 조류학자로서의 로버트 스트라우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를 감방 안에서 세계적인 조류학자로 만든 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50주년 기념행사 준비

존경하고 사랑하는 본당 및 지방공동체 형제자매님들과 더불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올 수 있었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들의 만남은 벌써 50년이란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2021년도에 우리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행사를 다음과 같이 준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사 내용 ***

1) 기념미사(14시) : 2021년 6월 26일(토), 함부르크 대교구 주교좌성당
2) 음악회(16시) : 함부르크 대교구 주교좌성당
3) 기념식사(18시) : 함부르크 대교구 주교좌성당 강당
4)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50주년 기념 책자 발간




*** 행사 준비 담당 ***

1) 기념 미사 : 주임신부님, 회장님, 전례분과.
2) 사진전시회 : 최장용(레오),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이동훈(노엘), 박성아(베로니카)
3) 음악회 : 김성윤(마르코), 김한솔나(리드비나)
4) 50주년 기념 책자 발행 : 김진호(프란치스코), 전우연(아녜스), 허채열(크리스티안), 정명옥(살로메)

*** 협조 사항 ***

상기와 같이 5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형제자매님들께 도움을 청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로 함께하는 행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1) 각 개인이나 가정에서 50주년 기념이 될 수 있는 사진들.
2) 개인들의 시, 수필, 신앙체험 등 그 외에 좋은 추억의 글들.
3) 5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자유기도를 전 신자분들께 청합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성당 기도모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 준비 위원장 허길조(안드레아) Tel. 5553441

❖ 축일을 축하합니다 ❖

**❖ 2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 | | | | |
|---|---|---|---|---|---|
| 3일 | 안스카 | 이경규 | 16일 | 율리안나 | 안지영 |
| 3일 | 블라시아 | 이희자 | 18일 | 마리안나 | 한말조 |
| 5일 | 아가타 | 문경영<br>정순화 | 24일 | 마티아스 | 이도영 |
| 7일 | 리차드 | 박춘실<br>Groensel | 26일 | 이사벨 | 이다윤 |
| 10일 | 스콜라스티카 | 조영희 | | | |

**❖ 2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 | | | | |
|---|---|---|---|---|---|
| 2일 | 요안나 | 이계선(H) | 9일 | 알렉산더 | 문지훈(H) |
| 4일 | 요안나 | 이순자(H) | 10일 | 스콜라스티카 | 이정자(H)<br>오윤숙(H) |
| 5일 | 아가타 | 허윤선(O)<br>정금선(B) | 16일 | 율리안나 | 송윤아(H)<br>이경의(H) |

✱ 지난 1월 15일 브레멘 공동체의 서선영(아우구스티노) 형제님과 김순자(젤트루다) 자매님의 금혼식이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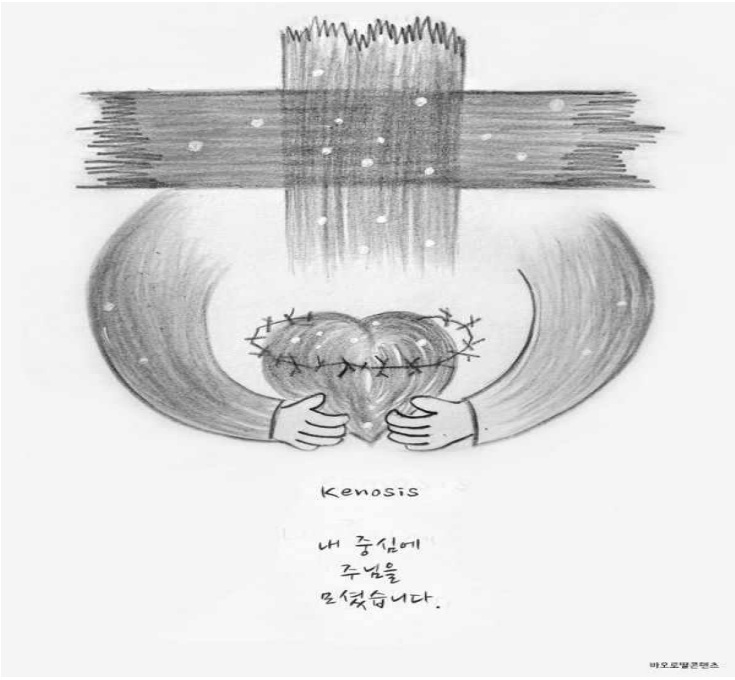


## ❖ 2월 성가번호 ❖

| 2월 | 입 당 | 봉 헌 | 성 체 | 파 견 |
|---|---|---|---|---|
| 7일 | 431 | 221 | 169 | 19 |
| 14일 | 416 | 210 | 436 | 401 |
| 21일 | 115 | 342 | 176 | 116 |
| 28일 | 117 | 512 | 180 | 118 |

## ❖ 2월 미사 전례 봉사자 ❖

| 2월 | 독 서 | 제 병 봉 헌 | 복 사 | 커피 봉사 |
|---|---|---|---|---|
| 7일 | 김진호(프란치스코)<br>최영숙(데레사) | 이철우(아우구스티노)<br>이영희(체칠리아) |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br>최장용(레오) | X |
| 14일 | 한말조(마리안나)<br>허명자(가밀라) | 허채열(크리스티안)<br>허영란(엘리사벳) | 주일학교 | X |
| 21일 | 청년회 | 청년회 | 청년회 | X |
| 28일 | 이수웅(필립보)<br>김순임(안나) | 배성우(도미니코)<br>심은희(안나) | 주일학교 | X |






## ❖ Hamburg 공동체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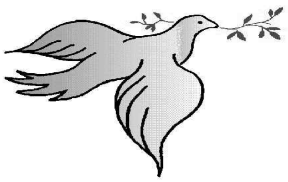
1. 2월 2일 화요일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저녁미사 때 초 축복이 있습니다. 미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2. 2월 12일 금요일은 설날 당일입니다. 10시에 만남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해주십시오.

3. 2월 14일 일요일은 설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미사 후 음식 나눔은 없겠습니다. 선종하신 분들을 위해서 초나 사진을 준비하신 분들은 미사 전에 제대 위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행복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4. 2월에도 일체의 모임은 없으며 미사 후 커피 나눔도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극복해가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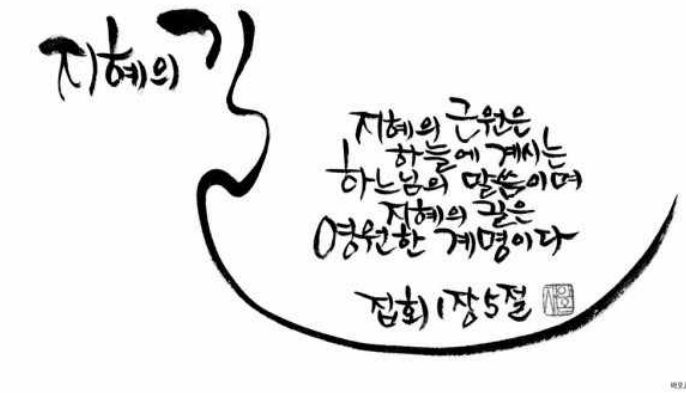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지방공동체 미사는 1월에 없었습니다. 2월 역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공지될 내용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방공동체 신자분들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그리고 거리 두기를 잘 지켜서 건강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 ❖ 활동단체 모임 안내 ❖

| | | | | | |
|---|---|---|---|---|---|
| **사 목 협 의 회** | |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 만남성당 | 회장 | 한말조(마리안나) |
| | | | | 부회장 | 허명자(가밀라) |
| | | | | 부회장 | 최영숙(데레사) |
| | | | | 전례부장 | 문경영(아가다) |
| | | | | 총무 | 이정훈(요나스) |
| **주 일 학 교** | | 매월 셋째 일요일 | 만남성당 | 교감 | 최영자(파울라) |
| **연 령 회** | |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 만남성당 | 회장 | 정정숙(아나벨) |
| **예 비 자 교 리** | | | 만남성당 | 복음화 | 회장 대리 |
| **레지오 마리애** | **믿음의 샘 Cu.** | 매월 첫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 만남성당 | 단장 | 허명자(가밀라) |
| | **자비의 모후 Pr.** |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 만남성당 | 단장 | 강순행(마르가리타) |
| | **평화의 모후 Pr.** |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 만남성당 | 단장 | 현영애(헬레나) |
| | **사랑의 모후 Pr. (청년)** |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 만남성당 | 단장 | 박성아(베로니카) |
| **구 역** | | 1구역 | 구역장 | 최종금(로사) | |
| | | | 총무 | 김매자(베로니카) | |
| | | 2구역 | 구역장 | 이영희(체칠리아) | |
| | | | 총무 | 정정숙(아나벨) | |
| | | 3구역 | 구역장 | | |
| | | | 총무 | | |
| | | 4구역 | 구역장 | 육종인(베로니카) | |
| | | | 총무 | 이순자(마리아) | |
| **청년회** | |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 회장 | 김한솔나(리드비나) | |
| | | | 부회장 | 황혜인(율리아) | |
| **요셉, 마리아회** | | 매월 둘째 수요일 오전미사 후 | 회장 | 조현영(로사리아) | |
| | | | 총무 | 이정은(프란치스카) | |
| **여성 봉사회** | | | 담당자 | 이정옥(크리스티나) | |
| | | | | 김매자(베로니카) | |
| | | | | 권지연(안드레아) | |

# 2월 중 행사 예정표

| 일 | 요일 | 전 례 일 | 단체 행사 | 비 고 |
|---|---|---|---|---|
| 1 | 월 | | | |
| 2 | 화 | 주님 봉헌 축일 | 초 축복(저녁미사) | 축성 생활의 날 |
| 3 | 수 | 입춘 | | |
| 4 | 목 | | | |
| 5 | 금 | 성녀 아가타 동정 순교자 기념일 | | |
| 6 | 토 | 성 바오로 미키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 | 브레멘 공동체 |
| 7 | 일 | 연중 제5주일 | | |
| 8 | 월 | | | |
| 9 | 화 | | | |
| 10 | 수 | 성녀 스콜라스티카 동정 기념일 | | |
| 11 | 목 | | | 세계 병자의 날 |
| 12 | 금 | 설날 | 설 미사<br>10:00(만남성당) | |
| 13 | 토 | | | 오스나브뤼크 |
| 14 | 일 | 연중 제6주일 | 설 합동 위령미사 | |
| 15 | 월 | | | |
| 16 | 화 | | | |
| 17 | 수 | 재의 수요일 | 19:00 만남성당 | 단식과 금육 |
| 18 | 목 | 재의 예식 다음 목요일, 우수 | | |
| 19 | 금 | 재의 예식 다음 금요일 | | |
| 20 | 토 | 재의 예식 다음 토요일 | | 하노버 공동체 |
| 21 | 일 | 사순 제1주일 | | |
| 22 | 월 |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 | | |
| 23 | 화 | | | |
| 24 | 수 | | | |
| 25 | 목 | | | |
| 26 | 금 | | | |
| 27 | 토 | | | |
| 28 | 일 | 사순 제2주일 | | |

##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철현 미카엘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안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nn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박 철 현 미카엘 gr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 미 사 안 내 ❖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4시 30분**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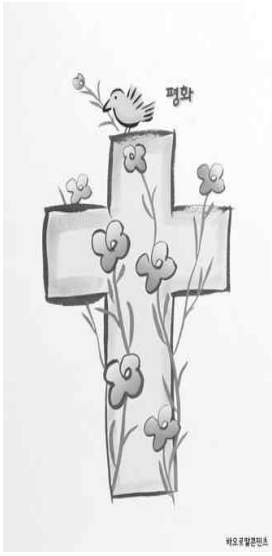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